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November 09, 2025, 10:30 a.m.

오순절 이후 스물두번째 주일 (Year C)

The Twenty-Second Sunday after Pentecost (Year C)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21 다 찬양하여라 (E)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C1019 나를 지으신 주님 (E) He Knows My Name

C1290 날 구원하신 주 감사 (G) Thanks to God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누가복음 Luke 20:27-38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7 형제와 한 과부 7 Brothers and a Widow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G)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니예샹파
- 마하라슈트라
- 파키스탄 북부 여성들
- 남아시아 젊은 여성들
- 다문화 팀
- 미전도종족: 산소이

THE FIRST LESSON 학개 HAGGAI 2:1-2:9

- 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 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 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 6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시편 PSALM 145:1-5, 17-21

-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 2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 3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 4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 5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 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 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도다
- 19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 20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 21 내 입이 여호와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THE SECOND LESSON 데살로니가 후서 2 THESSALONIANS 2:1-5, 13-17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공부 초점: 주의 날과 전통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박해의 압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자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를 알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1. 박해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을까요?
2.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돌아오셨지만 자신들의 교회에는 오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은 특히 예수를 따르다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노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정말로 재림하셨다면, 분명 데살로니가에 새로 시작한 활기찬 교회를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소식에 속지 말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소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날(또는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다른 징조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십시오. 다니엘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3: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는 주의 재림을 세상 종말의 징조들과 연결하여 이해했습니다.

3. “주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4.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편지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곧 “불법의 사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본문은 6-12 절을 생략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인물에 생생히 기록한 것을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6-12 를 읽어 보십시오.

5. 당신은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6. 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까요?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라고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들의 현재의 믿음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그들의 어려움을 위한 위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13-14, 개혁개정)

7.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8. 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

회중은 예배를 위해 모이고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그리고 회중은 믿음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교파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의 신자들과 하나로 연합합니다. 이 선포는 특정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전체를 요약하는 고백입니다.

9.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0.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염려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나요? 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도 받았지만, 또한 자신들이 배운 전통을 지키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개혁개정)

이 말씀은 전통주의자와 비전통주의자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구절이 기록된 본래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전통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12.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전통을 지키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난 2 천 년 동안 구전(口傳), 편지, 그리고 실천을 통해 수많은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 없다고 믿으며, 예배가 옛 교회의 형태를 닮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교회가 현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예배해야 하며, 오늘날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3. 교회가 어떤 전통을 지키고 어떤 전통을 내려놓을지 평가할 때, 당신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요?

우리 삶에서 믿음 실천하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루터교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는 신앙과 교리 조항들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복음에 따라 거행되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다.” (제 7 조, The Book of Concord, Fortress Press, Philadelphia, 1959, p. 32)

루터교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4.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될 것
15. 거룩한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될 것

이 정의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전통과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6.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17.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지막 말씀

이번 주에 한가지 전통을 선택해서 다시금 열정으로 실행해 보세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다시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THE GOSPEL 누가복음 LUKE 20:27-38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31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7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